

6월 29일 성 베드로 와 성 바오로 사도 대 축일

"너는 베드로이다. 내가 이 반
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
다."

2019-6-26

마태의 복음. 16,13-19

예수님께서 카이사리아 필리피 지방
에 다다르시자 제자들에게,

“사람의 아들을 누구라고들 하느냐?”
하고 물으셨다.

제자들이 대답하였다. “세례자 요한
이라고 합니다. 그러나 어떤 이들은
엘리아라 하고, 또 어떤 이들은 예레
미야나 예언자 가운데 한 분이라고
합니다.”

예수님께서 “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
구라고 하느냐?” 하고 물으시자,

시몬 베드로가 “스승님은 살아 계신
하느님의 아드님 그리스도입니다.”
하고 대답하였다.

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.

“시몬 바르요나야, 너는 행복하다! 살
과 피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
지께서 그것을 너에게 알려 주셨기
때문이다. 나 또한 너에게 말한다. 너
는 베드로이다. 내가 이 반석 위에 내
교회를 세울 터인즉, 저승의 세력도
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. 또 나는

너에게 하늘 나라의 열쇠를 주겠다.
그러니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
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, 네가 무엇이
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
것이다.”

묵상

너는 베드로이다. 내가 이 반석 위에
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.”; 우리의 주
님께서는 이렇게 말씀 하실 것입니
다. ‘나는 너를 잘 알고 있다. 베드로
야. 네가 나약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.
그러나 너는 베드로다! 나는 네가 가
장 필요한 순간에 네가 나를 모른다
며 부정할 것을 알고 있다. 또한 나는
네가 여전히 누가 첫째가 되고 가장
위대한 사람이 될 것인지 다른 사람
들과 논쟁을 펼칠 것이라는 것 역시
도 알고 있다. 하지만 네가 나를 사랑
한다는 것과 나의 사랑을 위해 네가
할 수 있다는 것 역시도 알고 있다.
베드로야, 나는 네가 나를 부정하고
나로부터 멀리 떠나버리는 허약하고

헛되다는 것을 알고 있다. 그러나 나는 네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울 것이다. 그리고 다른 모든 사도들과 전 세계 앞에서, 네 위에 세운 내 교회는 절대 세상이 끝날 때 까지 잊혀지지 않을 것이라고 여기에서 나는 너에게 말을 한다. 너는 나의 **반석**이다. 지옥의 문과 저승의 세력과 교회의 적과 나의 제자들을 박해하는 사람들도 네 위에 지은 나의 교회를 **이기지 못할 것이다!**

어느 날 바오로 성인은 베드로가 이민족에게 잘못된 행동을 한 것을 보았습니다. (갈라티아 2:11-14 참고) 그래서 바오로 성인은 베드로 성인에게 충고를 주며 그를 위해 교정을 해줘야 했습니다. (첫 번째 교황인) 성 베드로는 그의 가르침에 대한 교정이 필요 없었지만 그는 사람이었고 실수를 했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, 성 바오로는 그 반석을 주저하지 않고 따랐고 베드로 성인을 보기위해 예루

살렘으로 주저하지 않고 갔습니다.
(갈라티아 1:18 참고)

이것이 바로 반석위에 세워진 교회의 힘입니다. “그 교회의 힘보다 더 강한 것은 어디에도 없습니다. 당신의 힘이 교회의 세력에 제압되지 않도록 교회와 싸움을 하는 것을 포기 하십시오. 천국에 대항하는 전쟁을 벌이지 마십시오. 당신이 사람과 싸운다면, 당신은 정복하거나 정복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당신이 교회와 싸운다면, 당신은 정복할 수 없습니다. 왜냐하면 하느님께서 모든 것보다 강하시기 때문입니다... ‘하늘과 땅은 사라질지라도 내 말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.’ 그 말은 바로 ‘너는 베드로이다.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터인즉, 저승의 세력도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.’ 이 말씀을 뜻합니다. (성 요한 크리소스토모). 교회의 어머니이신 성모 마리아여, 성 베드로와 성 바오로여,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!

I pray 번역 원문 : George Boronat
신부

번역 : 정 대영 요셉

.....

pdf | document generated automatically
from [https://opusdei.org/ko-kr/article/
6weol-29il-seong-bedeurowa-seong-
baoro-sado-daecugil/](https://opusdei.org/ko-kr/article/6weol-29il-seong-bedeurowa-seong-baoro-sado-daecugil/) (2026-2-23)